

독서 목록을 만들라

循環熟讀(순환숙독)

독서할 때 가장 우려할 일은 단계나 순서를 뛰어넘어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이다. 이는 사사로운 욕심이 독서하는 본뜻을 억눌러 생기는 폐단이다.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워 독서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율곡은 독서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서와 절차에 따라 자세하게 읽는 것이 독서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가까운 곳을 꿰뚫어야 비로소 먼 곳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문의 일정한 경지를 넘어서면 독서의 순서와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학문의 틀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독서를 하게 되면, 끝내 독서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순서와 절차에 따라 독서를 해야 한다.

율곡이 정리한 독서의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는 『성학집요』와 『격몽요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뜻을 둔 학문의 규모와 범위를 개괄할 수 있는 독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본 독서 목록’이라고 해두자. 율곡이 읽고자 한 기본 도서는 오서五書, 오경五經으로, 모두 10여 종이다. 그것은 『소학小學』, 『대학大學』, 『대학혹문大學或問』,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시경詩經』, 『예경禮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등이다. 이 서적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율곡이 왜 이를 기본 도서로 삼았는지 살펴보자.

〈율곡의 기본 독서 목록〉

도서명	내용	선정 이유
『소학』	주자가 감수하고 제자인 유정지劉靖之 등이 편찬한 책. 학동學童들에게 유학에서 강조하는 일상생활의 도덕규범과 자기수양을 위한 실천 지침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활용.	사람이 행해야 할 근본 도리를 깨우치고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실천하기 위한 입문서이자 평생의 나침반으로 삼을 만한 책이다.

『대학』과 『대학훈문』	사서四書의 하나. 대인지학大人之學(어른의 학문). 제왕학의 필독서로 공자의 말을 제자 증자가 기술한 책. 유학의 기본 윤곽인 3대 강령과 8대 조목을 제시. 『대학훈문大學戒問』은 주자가 『대학』을 묻고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서 자세하게 해설한 책.	『대학』은 증자가 옛 사람들의 주된 학문 방법에 관한 공자의 말씀을 서술하고, 또 증자의 제자들이 이어받아 서술해 그 취지를 밝혔다. 그래서 앞뒤가 서로 연결되고, 체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대학』을 깊이 새겨 옛 사람들이 학문을 하면서 추구했던 방향을 알고 나서 『논어』와 『맹자』를 읽으면 이해하기 쉽다.
『논어』	사서의 하나.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죽은 후 스승의 평소 행동과 말을 정리하여 기록한 언행록.	어움을 구하고 사람의 선한 본성을 갈고 닦는 공부에 관해 하나하나 골똥하게 생각하고 깊이 체득할 수 있다.
『맹자』	사서의 하나. 맹자가 자신의 주장과 행동을 기술한 언행록. 주로 맹자가 제후諸侯 혹은 제자들과 대화하며 유가 사상을 펼친 내용으로 구성.	『맹자』를 읽어서 의로움과 이로움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알고, 인간의 욕심을 막고 선한 본성을 보존하는 이론들에 관해 하나하나 밝혀서 살피고 확충해야 한다.
『중용』	사서의 하나. '중庸'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용庸'이란 항상 존재하는 이치로 결코 바뀌지 않는 도리를 의미. '온 세상의 올	『중용』을 읽어서 옛 사람의 미묘한 뜻을 탐구해야 한다. 이렇게 힘써 쌓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혹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상의

『중용』	바른 도리와 정해진 이치'를 밝혀놓은 책.	정해진 이치를 따라 다스림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의 본령本領을 터득할 수 있다.
『시경』	오경五經 중 하나. 공자가 엮은 중국 고대의 시가집詩歌集. 공자는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시를 자신의 주장과 심정을 드러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삼음.	『시경』을 읽어서 사람이 본래 타고난 성정性情의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 선악의 높이 기려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에 관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서 때로는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경계해야 한다.
『예경』 (『예기』)	왕조 사회의 정치·사회·문화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규제하고 지배한 '예禮'에 관한 경전이자 고대 유가들의 사상과 학설을 집대성해 놓은 백과사전.	『예경』을 읽어서 하늘의 이치에 따라 밝힌 예禮의 문장과 의례 및 규칙이 만들어진 차례에 관해 하나하나 탐구하고 연구해서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서경』	일종의 '정치학 교과서'. 요임금과 순임금, 하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린 법도와 요체에 관한 글과 문장을 공자가 엮어 편찬한 책.	『서경』을 읽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큰 경륜과 큰 법칙에 관해 하나하나 요령을 터득하고 또한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찾아야 한다.
『역경』 (『주역』)	예측하기 힘든 인간사와 세상사의 앞날을 예언하는 점술서이면서, 천문天文·지리地理·인사人事 등 만물이 작동하는	『역경』을 읽어서 인간사와 세상사의 길함과 흉함, 보존과 멸망, 나아감과 물러남, 몰락과 번영의 기틀에 관해 하나하나

『역경』	근본 원리와 지혜가 담긴 책.	살피며 그 뜻을 음미하고 깊이 있게 연마해야 한다.
『춘추』	공자가 자신의 고향인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	『춘추』를 읽어서 선함을 높여 칭찬하고 악함을 징계해 벌하는 역양조종(抑揚縱橫)의 은미(隱微)한 말과 깊은 의미에 관해 하나하나 정확하고 치밀하게 연구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보다 전문적인 책으로 나아가라

이렇듯 기본 도서를 숙독해 자신이 뜻을 둔 학문을 대강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독서를 해야 한다. 이 단계의 독서 목록은 '심화 독서 목록'이라고 이름을 붙여두자. 율곡은 이 심화 독서 목록에 모두 6종의 책을 올려놓았다. 물론 구체적으로 언급한 6종의 서적 이외에도 성리학에 관한 여러 전문 서적을 찾아 읽어야 한다는 단서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심화 독서 단계에서는 필독해야 할 독서 목록과 보충해서 읽어야 할 서적을 잘 분별해야 한다. 앞선 기본 독서 단계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때문에 과도한 자신감이나 우쭐한 기분에 휩싸여 자칫 마음 내키는 대로 책을 읽다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나 혹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그치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율곡이 심화 독서 단계에서 필독을 권

면한 6종의 서적은 『근사록(近思錄)』 『가례(家禮)』 『심경(心經)』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이다.

〈율곡의 심화 독서 목록〉

도서명	내용	선택 이유
『근사록』	성리학의 바이블. 주자가 활동하기 이전 성리학의 근간을 이룬 대학자인 주돈이, 정명도와 정이천 형제, 장재(張載)의 어록과 문집 혹은 저서에서 핵심을 추려 뽑았다.	성리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가례』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치국(治國)의 예법'에 대비하여 관혼상제 등 가정의 일상생활을 다스리는 '제가(齊家)의 예법'을 정리했다.	가깝게는 가정생활에서부터 멀게는 나라일에 이르기까지 성리학의 이념과 질서를 철저히 도입하기 위해 읽어야 할 책이다.
『심경』	송나라 때 주자학파의 대학자였던 진덕수(眞德秀)가 '마음'을 논한 옛 성현의 말을 뽑고 거기에 여러 학자들의 주요 논의를 배치시켜 주석으로 삼았다.	성리학적 사색의 길잡이가 되는 책으로 사람의 심성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책이다.
『이정전서』	성리학을 하나의 철학 체계로 발전시킨 남송의 형제 학자인 정자, 곧 정명도와 정이천의 문집과 저서를 모아 편찬했다.	주자 이전에 성리학의 철학적 토대를 실질적으로 닦았던 정자의 글을 통해 성리학의 기초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주자대전』	주자가 평생 동안 저술한 모든 이론과 학설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여러 학자들과 질의하고 답변한 편지, 각종 시문들을 함께 모은 개인 문집이다.	성리학의 여러 이론과 학설에 대해 잘 해설되어 있어 깨달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해준다.
『주자어류』	주자가 제자들과 대화하거나 토론한 내용을 엮어서 편찬했다.	주자의 철학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이다.

율곡의 기본 독서 목록에 수록된 책은 오늘날에도 『손자병법(孫子兵法)』이나 『노자(老子)』 『장자(莊子)』 등과 더불어 인문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 읽는 고전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심화 독서 목록은 사실 성리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나 전문적인 연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읽기가 쉽지 않다. 다만 여기에서 각각의 독서 목록을 자세히 소개한 까닭은 율곡의 독서 자세, 곧 독서의 목표와 방향을 정했다면 비록 그 과정이 길고 험난하더라도—결코 서두르지 말고—하나하나 순서와 절차를 밟아 정복해나가는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율곡이 『격몽요결』과 『성학집요』의 독서 목록에 담은 뜻과 정신이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정조가 왕세손 시절 독서한 책의 목록과 순서를 살펴보면 ‘매우 그랬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정조는 4세 때부터 7세까지 『효경(孝經)』 『소학초략(小學抄略)』 『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을 읽은 다음, 『소학』(7~9세)→『대학』(9세)→『논어』(9~10세)→『사략』(10~13세)→『맹자』(11~12세)→『중용』(12~13세)→『서』

경』(13~14세)→『시경』(14~17세) 등을 읽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율곡의 독서 방법이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는 난독(亂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곡의 독서 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가? 먼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한 다음 ‘기본 독서’와 ‘심화 독서’ 그리고 ‘보충 독서’ 목록을 단계별로 짠 후 그 순서에 따라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독서가 일정한 수준과 경지에 도달한 다음에야 비로소 학문의 경계와 순서를 임의로 넘나들 수 있다. 그 단계에서는 나름의 논리와 지식 체계가 형성되므로 방향을 잃고 헤매거나 혹은 무언가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일 없이 자신의 독서 목표에 맞춰 책 속의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조절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서는 반드시 읽으라

율곡은 ‘심화 독서 목록’을 읽는 동안에도 틈나는 대로 ‘보충 독서 목록’을 작성해 읽을 것을 권했다. 특히 이때는 “역사책을 읽어서 과거와 현재의 일이 변화하는 양상을 꿰뚫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선비들이 유학의 경전이나 성리학 서적 못지않게 역사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필독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 『조선 왕실의 자녀교육법』 신명호, 시공사, 2005